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두려웠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제공 해밀도서관



① 1급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전혀 못 보는 교육생 두 명이 도서관독 연습을 하고 (2017. 6. 10) ②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아나운서인 이창훈 씨(왼쪽)를 만나 방송 실습을 하는 모습(2017. 4. 29).

경기도 부천시에는 해밀도서관(관장 이상희 신부)이 있다.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가 부천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1~3층은 점자도서관, 4~5층은 일반도서관인 통합도서관이다. 비장애인에게도 개방됐지만, 주이용자는 시각장애인이다. 2년 전 도서관을 자주 찾던 시각장애인 청년들이 구직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하기 위해 동아리 2개를 만들었다. 사회복지사와 방송 관련 동호회였다.

이 중 방송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권다빈(25) 씨는 아나운서와 성우의 꿈을 지녔다. 그녀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을 지원해줄 방법을 고민하던 해밀도서관의 이슬(32) 사서는 아산사회복지

① 재단의 문을 두드렸다. 아산재단에서 매년 진행하는 사회복지공모사업 중에서 취약계층자립 부문에 응모했고, 시각장애인들의 간절함과 이슬 사서의 기획력 덕분에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사업비를 지원받는 행운을 누렸다.

해밀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의 목소리로 보는 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2016년에는 시각장애인 8명의 구직 활동을 돕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 등을 가르쳤다. 2년 차인 2017년에는 사업의 인기가 높아져 대상자를 10명으로 확대해 성우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1년차 사업 참가자 8명 모두가 녹음도서 제작과 시각장애인용 제품 매뉴얼 녹음, 해밀도서관의 안내방송 제작과 행사 진행, 팟캐스트 방송 제작 등 구직에 성공해 아산재단으로부터 사업수행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사업의 물꼬를 튼 권다빈 씨는 부천시청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취직했다.

서울과 인천, 가평 등에 살면서 2년차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23~35세의 남자 4명, 여자 6명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발성 훈련과 동화구연 수업을 받는다. 이들은 올해 말쯤 방송국 성우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KBS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1년 계약직으로 시각장애인 성우를 뽑는다고 한다.

이슬 사서는 “이들의 진짜 꿈은 취직이나 성우, 아나운서가 아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던 이들의 진짜 바람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찾아서 다행이다”라고 교육성과를 전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의미인 ‘해밀’처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환한 앞날이 펼쳐지면 좋겠다. 🍎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370여 사회복지단체에 45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